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6호 [루체 제23108호] 주제 99 (2010)년 6월 5일 (토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파업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파업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파 수령에 대한 끌없는 충성성을 지니고 무역점 배 『주작봉 7号』 호 선원들은 머나먼 항해의 길에서 도 치해와 힘을 합쳐 배의 기술관리와 운영조직을 짜고 들어 1000 항차의 무사고를 보장하면서 해마다 말려 전승수적을 넘쳐 수행하였다.

인민대회당 정경전환을 일으킬 때 대한 당시 뜻을 받들고 농업과학원 벼연구소 소장 리예식, 연구사들인 백룡호, 장일찬, 과학서기 조룡운은 알곡생산을 늘리는데 이바지할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안과병원의 연구사들, 고려의 학파학원, 평양안과병원의 연구집단과 의료일군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보호에 기여 할 열의미에 효 suất을 암약품과 경혈신경도, 인공수정체를 연구 완성하고 황해북도민병원 일반외과 의사, 간호원들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뜻밖의 사고로 심한 화상을 당한 두명의 동료들을 소생시키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당하게 하기 위해 동구주택건설사업소 건설자들과 경총판 일군들,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경총판 맥주집을 훌륭히 개건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등대설비들의 현대화를 최첨단수준에서 실현하여 나라의 해상운수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청진철도국산하 청년철길기계화기 동중대원들은 방대한 철길개간공사를 험한 기간에 끝냈으며 철길의 통파능력을 훨씬 높였으며 김책시너맹위원회와 내맹들격대원들은 공사를 힘있게 수행하였다.

선군시대 모범선군원들은 김책체육련합기업소 리영준, 황해체육련합기업소 김영록, 해주평적공장 리원선, 연암립산사업소 리호산, 개성시 판문점협동농장 김경희, 뮤에숙, 운흥군 통포협동농장 양설희, 신천시 새날농장 황선실, 은천군 량남농장 리용녀, 김책시 송암남새전문화동농장 리남순, 사평원시 복의협동농장 김춘영은 끝없는 전투장들에서 다양한 형식파 방법으로 선동사업을 활발히 벌려 생산자대중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 놓여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온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파업수행에서 높은 협진성을 발휘함으로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보답하며 자랑찬 혁명적성과를 암고 100월의 경축광장에 떳떳이 들어설 혁명적열정에 넘쳐 있다.

본사기자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조선인민》

네팔신문 『아르판』 5월 14일부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조선인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신심과 탁판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그들은 김정일각하의 령도가 있는 한 반드시 행복하게 잘살 날이 온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조국에 바치는 애국의 열정과 위훈으로 날짜 날짜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내일에 살자!』 이것이 조선인민이 로동과 생활에서 언제나 높이 들고 나가는 구호이다.

이 혁명적인 구호밑에 조선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였으며 사회주의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고생물에 락이 온다는 배심을 가지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원쑤격멸의 기상안고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새 기적을 창조하자

총공세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가 있거나 있는 때에

대동강종합건재소에서 질 좋은 각종 마감건재들이 푹푹

처럼 솟아져 나오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력생만이 살길이다!』라는 당시의 구호를 실천행동으로 빛나게 실현하였다. 하시면서 명실공히 우리의 재부로 되는 주체적인 마감건재공장을 창설한 대동강종합건재기 sở의 일군들을 격려해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잠초민 무성하던 전필우에 소리치며 자랑할만한 전제기지를 일떠세운 그 백발불굴의 정신으로 이들은 생산을 계속していく 데 일하고 있다.

지난해 보다 한 달 앞당겨 4월초부터 생산에 들어간 타일 및 기와생산공장에서 두루 사이에 각종 타일 수십만㎡가 생산되어 강성대국건설장들에 보내여 있으며 수십만㎡가 일련의 품질과 생산 전과정을 한눈에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는 현대화된 생산조제체계를 세워놓았다.

최신식설비들로 장비된 대동강타일공장과 대동강건재공장에서는 각종 타일과 자기기와 뿐 아니라 수지건재품, 탈포보

크로 등도 생산하고 있다.

기술혁신활동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결과로 대리석타일 생산공장에서는 유아침투식으로

분말식으로 전환하여

색변화가 없고 절도 훨씬 높은 색面貌을 찾아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무연탄가스화에 성공하고 유약을 비롯한 값비싼 시약들을 자체로 개발하여 용함으로써 타일생산공장의 원료, 연료를 국산화하고 타일생산에서의 주제제품을 확고히 실현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기호와 민족적풍습, 정서에 맞게 장식타일의 문양도 끊임없이 개발해나가고 있다.

자기기와 생산공정에서는 단번소성법을 받아들여 기와실수율을 훨씬 높이었다.

현재 대동강타일은 평면편차, 직각편차, 강도, 고온 및 저온견砥성 등 그 질적지표들이 대체로 대단히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세계적으로 대동강타일공장과 같이 내벽, 외벽, 바닥, 장식 및 바, 대리석타일 등 모든 종류의 타일을 동시에 만들

어내는 종합적인 타일생산기지

는 찾을보기 힘들다.

이런 힘있는 주체적인 기업소

가 줄기찬 동음을 울리고 있다.

기술혁신활동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결과로 대리석타일 생산공장에서는 유아침투식으로

분말식으로 전환하여

제작하고 있다. 이런 힘있는 주체적인 기업소가 줄기찬 동음을 울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강성대국건설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이 땅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바탕으로 일군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동강종합건재기 sở의 출기찬 동음은 우리 당시 제시한 인민경제의 주체화방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두루한 실증으로 된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전제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당시의 방침을 짐작으로 접수하고 우리 나라의 품과 물로 질 좋은

량강도인의 청년들속에서 멀적의 기세드높이 위용을 세워갈 일념안하고 들풀은 사회주의건설의 중요부문들에 자원진출하는

에 국적소행이 발휘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의 시대, 뚜쟁이의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에 한몸바치는 것을 더없이 영광으로 여기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기이며 모든 정력과 지혜를 바치고 있습니다.』

김정일군의 청년들이 밭자위가 뜨겁게 새겨져 있는 명길들에 순결한 향심을 바쳐 갈 결심을 암고 령길로 판리원으로 진출하였다.

김형련군 수동중학교 출업생들은 대를 이어 산원을 지키거나 청춘의 힘과 지원을 남김 없이 발휘하여 불멸의 위훈으로

사설

전군중적으로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당창건 65돐에 즐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는 이렇게 지적되어 있다.

절약이 증산이다. 한공수의 노력, 한W의 전략, 한방울의 연유도 국력에 아끼자!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우리 당의 전통적호소를 높이 달고 증산과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써 인민생활환경에서 결정적전

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과학적인 기술경제적타산에 기초하여 절제자료의 기준을 정확히 정하고 이를 옮겨 적용하여야 하며 협연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끌어내야 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페미터를 확장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역사의 새벽길에 새겨진 애국의 자욱

대기적, 대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는 우리 조국땅우에 『지원』의 사상이 더욱 빛발치고 있다.

『지원』!

돌이켜 보면 낸대와 세기를 넘어 만경대 혁명일가의 유산으로 이어져온 『지원』의 사상은 오늘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해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성대 국건설대전을 얼마나 힘 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는가.

『지원』의 뜻을 되새겨 볼수록 만난 을 무릅쓰고 혁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신 불모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애국의 장정이 저우자우 어려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타락한 지도자이며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모의 투쟁업적을 가슴드겁게 들이켜 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 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의 아버지는 『지원』의 뜻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모의 투쟁업적은 『지원』의 원대한 뜻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1910년대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 폭압통치와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하여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이 하늘땅에 사무치고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충첩되던 시기였다.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애어서 감수할 수 없었던 우리 인민은 『왜멸북국』을 품에 헤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벌리였다.

하지만 그 모든 투쟁은 사대주의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분오락되고 일제의 통칼밑에 쓰러진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옮비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모친 진통을 겪고있었다.

비로 그려 한 시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수난에 찬 겨레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민족운동을 성취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찾아 진지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선생님께서는 온 나라 인

민을 각성시켜 불리워야만 국권을 회복할수 있으며 나라이의 독립을 위해 서는 뜻을 멀리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굳히시였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 몸이 젊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본놈들과 싸워이면 아겠습니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이를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 대로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 대중계동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그 후 강동군 분화리로 투쟁무대를 옮기신 선생님께서는 정력적인 활동으로 혁심들을 육성하고 군중적지반을 축성한데 기초하여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으며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 걸친 활동을 벌리시였다.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혁사의 새벽길을 헤치시던 날에 김형직선생님께서 무르익히신 무산혁명에 판한 사상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드겁게 울려주고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높은 리상과 포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수 없다.

그러나 『지원』의 사상은 개인의 영 달이나 출세를 넘두며 둔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찾는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 생활이며 대로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여나 나라의 해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이다.

그려 한 혁명적인 생활,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을 안으시고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1910년대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 폭압통치와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하여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이 하늘땅에 사무치고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충첩되던 시기였다.

오로지 나라이의 독립을 위해 선생님께서는 결연히 민족수난의 자욱을 무었으로나 해야될수 있을것인가.

학당문화 활동, 연단, 사리원, 은율과 재현, 해주, 벽성, 성천, 개천, 덕천, 허령...

조선지 도를 펼치고 이 무수한 지명들을 가슴에 새겨 보느라면 김형직선생님께서 결연히 애국의 자욱자욱이 눈앞에 어려와 혁명을 할수 있다.

『지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제에게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정신을 안으시고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1910년대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 폭압통치와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하여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이 하늘땅에 사무치고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충첩되던 시기였다.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애어서 감수할 수 없었던 우리 인민은 『왜멸북국』을 품에 헤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벌리였다.

하지만 그 모든 투쟁은 사대주의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분오락되고 일제의 통칼밑에 쓰러진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옮비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모친 진통을 겪고있었다.

비로 그려 한 시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수난에 찬 겨레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민족운동을 성취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찾아 찾았어야 한다는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이다.

무산혁명수행을 위한 새로운 혁명

며 주체 2 (1913)년 봄부터 순화 학교를 거점으로 독립운동의 후비를 키우시는 한민경대와 철물, 두단리, 오류리, 광정리 그리고 대동군의 여리

곶과 안주와 남포, 수안일대를 투쟁무대로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 대중계동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그 후 강동군 분화리로 투쟁무대를 옮기신 선생님께서는 정력적인 활동으로 혁심들을 육성하고 군중적지반을 축성한데 기초하여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였으며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 걸친 활동을 벌리시였다.

그들이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혁사의 새벽길을 헤치시던 날에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무산혁명수행을 위하여 온 나라의 혁명정신을 안으시고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1910년대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 폭압통치와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하여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이 하늘땅에 사무치고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충첩되던 시기였다.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애어서 감수할 수 없었던 우리 인민은 『왜멸북국』을 품에 헤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벌리였다.

하지만 그 모든 투쟁은 사대주의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분오락되고 일제의 통칼밑에 쓰러진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옮비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모친 진통을 겪고있었다.

비로 그려 한 시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수난에 찬 겨레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민족운동을 성취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찾아 찾았어야 한다는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이다.

그려 한 혁명적인 생활,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을 안으시고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1910년대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 폭압통치와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하여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이 하늘땅에 사무치고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충첩되던 시기였다.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애어서 감수할 수 없었던 우리 인민은 『왜멸북국』을 품에 헤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벌리였다.

하지만 그 모든 투쟁은 사대주의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분오락되고 일제의 통칼밑에 쓰러진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옮비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모친 진통을 겪고있었다.

비로 그려 한 시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수난에 찬 겨레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민족운동을 성취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찾아 찾았어야 한다는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이다.

그려 한 혁명적인 생활,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을 안으시고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1910년대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 폭압통치와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하여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이 하늘땅에 사무치고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충첩되던 시기였다.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애어서 감수할 수 없었던 우리 인민은 『왜멸북국』을 품에 헤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벌리였다.

하지만 그 모든 투쟁은 사대주의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분오락되고 일제의 통칼밑에 쓰러진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옮비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모친 진통을 겪고있었다.

비로 그려 한 시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수난에 찬 겨레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민족운동을 성취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찾아 찾았어야 한다는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이다.

그려 한 혁명적인 생활,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을 안으시고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1910년대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 폭압통치와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하여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이 하늘땅에 사무치고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충첩되던 시기였다.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애어서 감수할 수 없었던 우리 인민은 『왜멸북국』을 품에 헤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벌리였다.

하지만 그 모든 투쟁은 사대주의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분오락되고 일제의 통칼밑에 쓰러진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옮비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모친 진통을 겪고있었다.

비로 그려 한 시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수난에 찬 겨레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민족운동을 성취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찾아 찾았어야 한다는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이다.

그려 한 혁명적인 생활,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을 안으시고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1910년대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 폭압통치와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하여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이 하늘땅에 사무치고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충첩되던 시기였다.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애어서 감수할 수 없었던 우리 인민은 『왜멸북국』을 품에 헤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벌리였다.

하지만 그 모든 투쟁은 사대주의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분오락되고 일제의 통칼밑에 쓰러진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옮비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모친 진통을 겪고있었다.

비로 그려 한 시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수난에 찬 겨레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민족운동을 성취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찾아 찾았어야 한다는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이다.

그려 한 혁명적인 생활,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을 안으시고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1910년대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 폭압통치와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하여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이 하늘땅에 사무치고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충첩되던 시기였다.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애어서 감수할 수 없었던 우리 인민은 『왜멸북국』을 품에 헤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벌리였다.

하지만 그 모든 투쟁은 사대주의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분오락되고 일제의 통칼밑에 쓰러진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옮비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모친 진통을 겪고있었다.

비로 그려 한 시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수난에 찬 겨레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민족운동을 성취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찾아 찾았어야 한다는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이다.

그려 한 혁명적인 생활,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을 안으시고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1910년대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 폭압통치와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하여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이 하늘땅에 사무치고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충첩되던 시기였다.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애어서 감수할 수 없었던 우리 인민은 『왜멸북국』을 품에 헤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벌리였다.

하지만 그 모든 투쟁은 사대주의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분오락되고 일제의 통칼밑에 쓰러진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옮비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모친 진통을 겪고있었다.

비로 그려 한 시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수난에 찬 겨레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민족운동을 성취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찾아 찾았어야 한다는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이다.

그려 한 혁명적인 생활,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을 안으시고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1910년대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 폭압통치와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하여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이 하늘땅에 사무치고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충첩되던 시기였다.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애어서 감수할 수 없었던 우리 인민은 『왜멸북국』을 품에 헤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벌리였다.

하지만 그 모든 투쟁은 사대주의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분오락되고 일제의 통칼밑에 쓰러진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옮비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모친 진통을 겪고있었다.

비로 그려 한 시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수난에 찬 겨레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민족운동을 성취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찾아 찾았어야 한다는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이다.

그려 한 혁명적인 생활,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을 안으시고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1910년대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 폭압통치와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하여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이 하늘땅에 사무치고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충첩되던 시기였다.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애어서 감수할 수 없었던 우리 인민은 『왜멸북국』을 품에 헤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벌리였다.

하지만 그 모든 투쟁은 사대주의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분오락되고 일제의 통칼밑에 쓰러진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옮비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모친 진통을 겪고있었다.

비로 그려 한 시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수난에 찬 겨레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민족운동을 성취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찾아 찾았어야 한다는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이다.

그려 한 혁명적인 생활, 백발불굴의 혁명정신을 안으시고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1910년대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식민지 폭압통치와 가혹한 수탈정책으로 하여 인민들의 원한과

서로 보내는 통고문

한 광 춘

6월의 하늘
통일 6. 15의 환희가 차분히
푸른 저 하늘에 어린 일로
분노의 희망이 우는가
증오의 서리발이 날리는가

나는 이 나라의 시인
정녕코 용서 할수 없구나
《북 어뢰공격설》을 날조하고
전쟁불사를 떠드는 역적폐당의
낯짜에
이 통고문을 톡剔처럼 던진다

가소롭다
진실은 절대로 감출수 없는 법
그 무슨 《물증》으로 내놓은
《회악성분》이며 《합금조각》
《어뢰추진체》며 서를게 새긴 수자
『1번』…

오히려 그것은 네놈들의 거짓을
까닭하는

움직일수 없는 물증

세계를 우롱하지 말라
아무리 사건의 진상을
《북풍》보자기에 감싸고 감싸도
이미 날을대로 날아 훠여진
그 구멍으로 보인다

화약을 입에 물 역적폐당의 낯짜이

애당초 너희들은
진실을 말해본적이 없다
모략과 날조가 생존방식인 역적
폐당

오늘은 동강난 《천안》호 《조사
결과》에

온 명줄을 걸었구나

민족이 저주하고 세계가 규탄한다
우리 민족을 영영 둘로 갈라놓으
려는
네놈들의 가증스런 정체를
분별잃은 호전광들의 광란을

동족을 해칠 모략과 음모의 보파
리를

유엔에까지 가져 가려고 날뛰는
무리

해를 두고 고립과 제재의 광풍을
몰아왔지만

민족의 고립을 당한것은 바로
네놈들

인류량심의 제재를 받은것도 바로
네놈들

전률하라

이 강토의 무심한 돌파 나무도

분노에 치를 떨고 서리발을 세우며
네놈들을 겨누어 총탄이 되고
창풀이 되었다
참풀이 그만들

원주격렬의 용암이 빅래로 치솟아
끓는다

나는 이 나라의 시인
정녕코 용서 할수 없구나
《북 어뢰공격설》을 날조하고
전쟁불사를 떠드는 역적폐당의
낯짜에
이 통고문을 톡剔처럼 던진다

가소롭다

진실은 절대로 감출수 없는 법
그 무슨 《물증》으로 내놓은
《회악성분》이며 《합금조각》
《어뢰추진체》며 서를게 새긴 수자
『1번』…

오히려 그것은 네놈들의 거짓을
까닭하는

움직일수 없는 물증

세계를 우롱하지 말라
아무리 사건의 진상을
《북풍》보자기에 감싸고 감싸도
이미 날을대로 날아 훠여진
그 구멍으로 보인다

화약을 입에 물 역적폐당의 낯짜이

애당초 너희들은
진실을 말해본적이 없다
모략과 날조가 생존방식인 역적
폐당

오늘은 동강난 《천안》호 《조사
결과》에

온 명줄을 걸었구나

민족이 저주하고 세계가 규탄한다
우리 민족을 영영 둘로 갈라놓으
려는
네놈들의 가증스런 정체를
분별잃은 호전광들의 광란을

동족을 해칠 모략과 음모의 보파
리를

유엔에까지 가져 가려고 날뛰는
무리

해를 두고 고립과 제재의 광풍을
몰아왔지만

민족의 고립을 당한것은 바로
네놈들

인류량심의 제재를 받은것도 바로
네놈들

전률하라

이 강토의 무심한 돌파 나무도

나는 이 나라의 시인
정녕코 용서 할수 없구나
《북 어뢰공격설》을 날조하고
전쟁불사를 떠드는 역적폐당의
낯짜에
이 통고문을 톡剔처럼 던진다

가소롭다

진실은 절대로 감출수 없는 법
그 무슨 《물증》으로 내놓은
《회악성분》이며 《합금조각》
《어뢰추진체》며 서를게 새긴 수자
『1번』…

오히려 그것은 네놈들의 거짓을
까닭하는

움직일수 없는 물증

세계를 우롱하지 말라
아무리 사건의 진상을
《북풍》보자기에 감싸고 감싸도
이미 날을대로 날아 훠여진
그 구멍으로 보인다

화약을 입에 물 역적폐당의 낯짜이

애당초 너희들은
진실을 말해본적이 없다
모략과 날조가 생존방식인 역적
폐당

오늘은 동강난 《천안》호 《조사
결과》에

온 명줄을 걸었구나

민족이 저주하고 세계가 규탄한다
우리 민족을 영영 둘로 갈라놓으
려는
네놈들의 가증스런 정체를
분별잃은 호전광들의 광란을

동족을 해칠 모략과 음모의 보파
리를

유엔에까지 가져 가려고 날뛰는
무리

해를 두고 고립과 제재의 광풍을
몰아왔지만

민족의 고립을 당한것은 바로
네놈들

인류량심의 제재를 받은것도 바로
네놈들

전률하라

이 강토의 무심한 돌파 나무도

나는 이 나라의 시인
정녕코 용서 할수 없구나
《북 어뢰공격설》을 날조하고
전쟁불사를 떠드는 역적폐당의
낯짜에
이 통고문을 톡剔처럼 던진다

가소롭다

진실은 절대로 감출수 없는 법
그 무슨 《물증》으로 내놓은
《회악성분》이며 《합금조각》
《어뢰추진체》며 서를게 새긴 수자
『1번』…

오히려 그것은 네놈들의 거짓을
까닭하는

움직일수 없는 물증

세계를 우롱하지 말라
아무리 사건의 진상을
《북풍》보자기에 감싸고 감싸도
이미 날을대로 날아 훠여진
그 구멍으로 보인다

화약을 입에 물 역적폐당의 낯짜이

애당초 너희들은
진실을 말해본적이 없다
모략과 날조가 생존방식인 역적
폐당

오늘은 동강난 《천안》호 《조사
결과》에

온 명줄을 걸었구나

민족이 저주하고 세계가 규탄한다
우리 민족을 영영 둘로 갈라놓으
려는
네놈들의 가증스런 정체를
분별잃은 호전광들의 광란을

동족을 해칠 모략과 음모의 보파
리를

유엔에까지 가져 가려고 날뛰는
무리

해를 두고 고립과 제재의 광풍을
몰아왔지만

민족의 고립을 당한것은 바로
네놈들

인류량심의 제재를 받은것도 바로
네놈들

전률하라

이 강토의 무심한 돌파 나무도

나는 이 나라의 시인
정녕코 용서 할수 없구나
《북 어뢰공격설》을 날조하고
전쟁불사를 떠드는 역적폐당의
낯짜에
이 통고문을 톡剔처럼 던진다

가소롭다

진실은 절대로 감출수 없는 법
그 무슨 《물증》으로 내놓은
《회악성분》이며 《합금조각》
《어뢰추진체》며 서를게 새긴 수자
『1번』…

오히려 그것은 네놈들의 거짓을
까닭하는

움직일수 없는 물증

세계를 우롱하지 말라
아무리 사건의 진상을
《북풍》보자기에 감싸고 감싸도
이미 날을대로 날아 훠여진
그 구멍으로 보인다

화약을 입에 물 역적폐당의 낯짜이

애당초 너희들은
진실을 말해본적이 없다
모략과 날조가 생존방식인 역적
폐당

오늘은 동강난 《천안》호 《조사
결과》에

온 명줄을 걸었구나

민족이 저주하고 세계가 규탄한다
우리 민족을 영영 둘로 갈라놓으
려는
네놈들의 가증스런 정체를
분별잃은 호전광들의 광란을

동족을 해칠 모략과 음모의 보파
리를

유엔에까지 가져 가려고 날뛰는
무리

해를 두고 고립과 제재의 광풍을
몰아왔지만

민족의 고립을 당한것은 바로
네놈들

인류량심의 제재를 받은것도 바로
네놈들

전률하라

이 강토의 무심한 돌파 나무도

나는 이 나라의 시인
정녕코 용서 할수 없구나
《북 어뢰공격설》을 날조하고
전쟁불사를 떠드는 역적폐당의
낯짜에
이 통고문을 톡剔처럼 던진다

가소롭다

진실은 절대로 감출수 없는 법
그 무슨 《물증》으로 내놓은
《회악성분》이며 《합금조각》
《어뢰추진체》며 서를게 새긴 수자
『1번』…

오히려 그것은 네놈들의 거짓을
까닭하는

움직일수 없는 물증

세계를 우롱하지 말라
아무리 사건의 진상을
《북풍》보자기에 감싸고 감싸도
이미 날을대로 날아 훠여진
그 구멍으로 보인다

화약을 입에 물 역적폐당의 낯짜이

애당초 너희들은
진실을 말해본적이 없다
모략과 날조가 생존방식인 역적
폐당

오늘은 동강난 《천안》호 《조사
결과》에

온 명줄을 걸었구나

민족이 저주하고 세계가 규탄한다
우리 민족을 영영 둘로 갈라놓으
려는
네놈들의 가증스런 정체를
분별잃은 호전광들의 광란을

동족을 해칠 모략과 음모의 보파
리를

유엔에까지 가져 가려고 날뛰는
무리

해를 두고 고립과 제재의 광풍을
몰아왔지만

민족의 고립을 당한것은 바로
네놈들

인류량심의 제재를 받은것도 바로
네놈들

전률하라

이 강토의 무심한 돌파 나무도

나는 이 나라의 시인
정녕코 용서 할수 없구나
《북 어뢰공격설》을 날조하고
전쟁불사를 떠드는 역적폐당의
낯짜에
이 통고문을 톡剔처럼 던진다

가소롭다

진실은 절대로 감출수 없는 법
그 무슨 《물증》으로 내놓은
《회악성분》이며 《합금조각》
《어뢰추진체》며 서를게 새긴 수자
『1번』…

오히려 그것은 네놈들의 거짓을
까닭하는

움직일수 없는 물증

세계를 우롱하지 말라
아무리 사건의 진상을
《북풍》보자기에 감싸고 감싸도
이미 날을대로 날아 훠여진
그 구멍으로 보인다

화약을 입에 물 역적폐당의 낯짜이

애당초 너희들은
진실을 말해본적이 없다
모략과 날조가 생존방식인 역적
폐당

오늘은 동강난 《천안》호 《조사
결과》에

온 명줄을 걸었구나

민족이 저주하고 세계가 규탄한다
우리 민족을 영영 둘로 갈라놓으
려는
네놈들의 가증스런 정체를
분별잃은 호전광들의 광란을

동족을 해칠 모략과 음모의 보파
리를

유엔에까지 가져 가려고 날뛰는
무리

혁명적도덕의리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신 불세출의 대성인

이 땅에 수령영생의 역사가 출기자에 흐르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80여 성장의 로고와 현신의 자욱자욱이 드겁게 스며든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의 그 어디나 불멸의 위인 송자가 울려피고 그 이름도 자랑높은 김일성同志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따라 수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시던 그 네원, 그 리상을 꽂아우며 세기와 세대를 이어 순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혁사를 끝없이 수놓아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나고 있는 령도력과 품모, 그가 벌휘한 충실성과 현신성, 그가 이루어진 령도력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계획하고 전진시키신 선군령명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끌까지 계승

완성시켜 나가시려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철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일찌기 고결한 도덕판을 체현하고 혁명적도덕의리의 산모법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참다운 혁명가가 지녀야 할 기본정표의 하나로 규정하심으로써 혁명적

도덕건설의 위대한 사상리론적법칙을 찾으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84 (1995)년 12월 25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작『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이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에서 도덕

의리가 혁명가의 품격을 규정하는 기본정표의 하나이라는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혁명선배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혁명에 대한 태도문제인 동시에 혁명가들의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하시면서 혁명의 선배와 후배 사이의 관계는 혁명을 먼저 하고 후에 하는 차이가 있지만 혁명의 한길에서 싸워나가는 혁명가들 사이의 동지적 판계이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주로 육체적 생명을 주고받는 혈육의 관계라면 혁명가들 사이의 관계는 혁명의 한길에 듯이 같이하고 생운사례를 끝이하며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가는 혁명동지들 사이의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가들은 혁명동지를 배반하고 동지들과의 관계에서 량심과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가장 치욕스러운 배신행위로 여겨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가들의 도덕적 품모는 수령을 충직하게 밟았을 때 보시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수령에 대한 충실향은 혁명적의리의 최고표현으로 되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천명하신 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수이고 령도자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가의 주체이지만 타월한 수령의 명도를 뱉을 때에만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 혁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다.

수령은 과학적인 혁명사상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을 승리으로 끌어내며 사람들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그들을 혁명의 한길에서 깊어온 삶을 빛내여 나가도록 이끌어준다.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수천수만의 혁명가들이 자라나고 인민들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된다. 수령의 명도를 떠나서는 혁명가들의 모든 영예와 행복, 참된 삶에 대하여 생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령에게 대를 이어 출신하는 것은 혁명가들이 마땅한 본분으로, 최고의 혁명적 도덕의리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참다운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기본

품성의 하나로 규정해주심으로써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활성화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혁명적 품모로써 혁명적 도덕의리의 선배

역사를 창조해나갈수 있는 강령적 지침이 마련되어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혁명의 힘으로 말살하려고 혁명의 힘을 쓰고 강행한 비렬한 반혁명적 행위는 세상사람들에게 혁명가들에 대한 나쁜 인상을 주게 되었다.

수령을 힘들고 수령의 업적을 말이면은 자신을 혁명의 배신자, 범절자로, 혁명적의리 저버린 추악한

인간으로 탐미하고 혁명가들의 고결한 의리심, 도덕판을 사상의 전통으로 몇차례나 존중하고 실천으로 보여주신분은 우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을 헐뜯고 수령의 명예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명성을 떠나는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기본정표의 수령에 대한 충실향은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이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표현으로 되어 있다.

로작이 발표된 후 불파 석달동안에 만도 세계 2 10여개 출판보도

물들이 로작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명성을 떠나는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기본정표의 수령에 대한 충실향은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이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표현으로 되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을 헐

뜯고 그의 성스러운 혁명투쟁과 위대한

업적을 모두한 기회주의자들과 사

회주의 배신자들의 책 등을 제국주의

의 압력에 굽복하여 혁명을 배반한

가장 비열한 반혁명적 폭행으로, 혁

명적의리를 저버리고 초보적인 인간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광범히 연구보급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심으로써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도덕판을 실천으로 끌어들여 보여주시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 사회주의 운동안에서는 혁명가의 탈을 쓴 기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에

의하여 혁명적 도덕이 심히 훼손되거나 할 때마다

이자들은 로동계급의 수령들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수령을 존대

하고 수령의 업적을 고수할 것처럼

떠들어 있으나 전권의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는 갖은 혐오감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혁명의 힘으로 말살하려고 혁명의 힘을 쓰고 강행한 비렬한 반혁명적 행위는 세상사람들에게 혁명가들에 대한 나쁜 인상을 주게 되었다.

수령을 헐뜯고 수령의 명예를 말이면은 자신을 혁명의 배신자, 범절자로, 혁명적의리 저버린 추악한

인간으로 탐미하고 혁명가들의 고결한 의리심, 도덕판을 사상의 전통으로 몇차례나 존중하고 실천으로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을 헐

뜯고 그의 성스러운 혁명투쟁과 위대한

업적을 모두한 기회주의자들과 사

회주의 배신자들의 책 등을 제국주의

의 압력에 굽복하여 혁명을 배반한

가장 비열한 반혁명적 폭행으로, 혁

명적의리로 짚밟은 가장 비도덕적인 배신행위로 탄핵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칼 맙스 탄생 165돐 및 서거 100돐에 즈음하여 불후의 고전적로작『맑스 레닌주지와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기』를 발표하시여 맑스와 레닌이 더욱 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을 국제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으로 찬양하시였다.

정녕 혁명적 품모로써 혁명가들의 가치가 고장에 기록되어있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처럼

수령이 생존해 세상에 떠나면서 그들이 국제로동계급의 공적은

세계로 전개되는 혁명적 품모로써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기본

생존해 있을 때에는 수령을 존대

하고 수령의 업적을 고수할 것처럼

떠들어 있으나 전권의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는 갖은 혐오감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혁명의 힘으로 말살하려고 혁명의 힘을 쓰고 강행한 비렬한 반혁명적 행위는 세상사람들에게 혁명가들에 대한 나쁜 인상을 주게 되었다.

수령을 헐뜯고 수령의 명예를 말이면은 자신을 혁명의 배신자, 범절자로, 혁명적의리 저버린 추악한

인간으로 탐미하고 혁명가들의 고결한 의리심, 도덕판을 사상의 전통으로 몇차례나 존중하고 실천으로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을 헐

뜯고 그의 성스러운 혁명투쟁과 위대한

업적을 모두한 기회주의자들과 사

회주의 배신자들의 책 등을 제국주의

의 압력에 굽복하여 혁명을 배반한

가장 비열한 반혁명적 폭행으로, 혁

명의 모습으로 영생하시고 그이의 거룩한 생애와 탁월한 사상, 불멸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 길이 끊나고 있다.

정녕 혁명적 품모로써 혁명가들의 가치가 고장에 기록되어있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처럼

수령이 생존해 세상에 떠나면서 그들이 국제로동계급의 공적은

세계로 전개되는 혁명적 품모로써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기본

생존해 있을 때에는 수령을 존대

하고 수령의 업적을 고수할 것처럼

떠들어 있으나 전권의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는 갖은 혐오감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혁명의 힘으로 말살하려고 혁명의 힘을 쓰고 강행한 비렬한 반혁명적 행위는 세상사람들에게 혁명가들에 대한 나쁜 인상을 주게 되었다.

수령을 헐뜯고 수령의 명예를 말이면은 자신을 혁명의 배신자, 범절자로, 혁명적의리 저버린 추악한

인간으로 탐미하고 혁명가들의 고결한 의리심, 도덕판을 사상의 전통으로 몇차례나 존중하고 실천으로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을 헐

뜯고 그의 성스러운 혁명투쟁과 위대한

업적을 모두한 기회주의자들과 사

회주의 배신자들의 책 등을 제국주의

의 압력에 굽복하여 혁명을 배반한

가장 비열한 반혁명적 폭행으로, 혁

명의 품모로써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기본

생존해 있을 때에는 수령을 존대

하고 수령의 업적을 고수할 것처럼

미국의 위협책 동을 배격

이란 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최근 한 외교석상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위협책 동을 규탄해 배격하였다.

그는 그 어느 나라든 위협과

압력으로 이란에 영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행위를 규탄

에 질트대통령 무함마드 후쓰니 무바라크가 5월 31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만행을 단죄하였다.

성명은 팔레스타니의 가지지 대로 항행하던 국제인도주의 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 해군의 공격은 국단적인 폭력행위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 철책을 주장하면서 성명은 팔레스타니인들을 지지하는 자

기나라 정부의 굳은 편대성과 재확인하였다.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 철책을 주장하면서 성명은 팔레스타니인들을 지지하는 자

기나라 정부의 굳은 편대성과 재확인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만행은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법에 대한 한반도적인 침해로서

중동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위험한 행위로 여겨졌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군사적인 행위로 여겨졌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행위로 여겨졌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행위로 여겨졌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행위로 여겨졌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행위로 여겨졌다.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세계환경의 날이 제정되자 38년이 된다.

그 기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